

Dave Mathewson 박사, 신약 문학,

강의 22, 빌립보서

© 2024 데이브 매튜슨(Dave Mathewson)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신약 역사와 문학,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강의 22강의 데이브 매튜슨 박사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시작합시다.

아버지, 야외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다루게 될 신약성서의 부분들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가 신약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맥락을 더 잘 인식하고 더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 우리는 그들이 오늘날 당신의 말씀이자 계시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퀴즈 기다리고 계신가요? 적어도 아직 어쨌든 기말고사가 있는 주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우편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 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 즉 빌립보서라고 부르는 책을 열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빌립보서가 기록된 맥락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빌립보 도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선, 빌립보라는 도시는 오늘날의 그리스 북부 지역이자 당시 마케도니아로 알려진 나라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를 헬레니즘화하고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 전체에 퍼뜨린 막강한 장군인 알렉산더 대왕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의 왕국은 기본적으로 로마가 등장할 때까지 다른 어떤 왕국보다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라는 도시는 1세기에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로마 식민지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빌립보가 로마군 퇴역 군인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 빌립보에 올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에 살면서 일종의 면세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곳도 바로 그 도시, 즉 그곳에 정착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는 우리가 꽤 빠르게 순항하고 빠르게 살펴보게 될 책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 같은 책을 읽는데 약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주 빠르게 빌립보서를 훑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곧바로 묻고 싶습니다. 바울은 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바울은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쓴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지정한 책들 중 하나이거나 신약성서의 학생들이 옥중서신으로 지정한 책들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이 편지를 읽을 때 그가 글을 쓰는 동안 감옥에 갇혔던 것에 대해 분명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시점에서는 Paul을 가택연금 상태라고 묘사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울의 투옥을 생각할 때 그가 군인에게 묶여 있거나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촛불을 켜놓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바울은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빌립보서를 읽을 때 확실히 그런 인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자신이 감옥과 가택연금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는데, 그 목적 중 하나는 감옥에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빌립보인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감옥 상황은 복음에 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복음의 패배를 의미하지도 않았고, 빌립보인들의 승리를 의미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 제국.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로마 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마도 그의 독자 중 일부는 그의 투옥이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복음에 해를 끼치는 일이 일어날 것인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이 복음이 계속해서 발전하지 못했다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혔는지 설명하기 위해, 혹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재정적 지원에 감사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고린도전서의 편지와 비교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과 그곳에서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인들과의 관계가 후원자-고객 유형의 관계, 또는 다른 제자들의 관심과 따르기를 위해 경쟁하는 궤변가와 다른 사람들이 있는 관계로 혼동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 일했다.

그는 자신의 가게를 차리고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의 경우에는 뭔가 매우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바울은 전임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재정적 지원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인들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셋째, 마지막 목적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그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중 하나는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나에게는 그 편지를 읽을 때 왜 교회 내에 분쟁이나 다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왜 그런 것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2장과 4장을 보면 편지 끝 부분에 다툼이나 다툼이 있고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바울은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편지를 씁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소하거나 진정시키고 교회의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나 다른 책들과 비교해 보면 바울을 그토록 화나게 한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교회가 분열될 위험에 처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열이나 다툼, 갈등의 위험에 처했을 때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정말 짜증나게 했던 것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열, 곧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이유로 다툼이 있어 분쟁이 생겨 교회가 분열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인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겪었던 것과 매우 유사한 상황에 다시 한번 직면하고 있는데, 바로 교회에 침투한 유대교인들의 집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히는 집단이 있었고 그의 사역의 거의 모든 순간에 거의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가르침을 장려하려고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에 속하려면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려는 복음은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며, 모세의 율법에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문제에 빠뜨리는 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 열심이었던 사람들과 모세의 율법에 열심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바울에게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러한 유대교도들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3장을 읽으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바울에게 빌립보서를 쓴 주요 목적 중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의 투옥은 약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복음의 능력과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재정적 지원에 대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이 계속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고, 그런 다음 교회의 몇 가지 문제를 다루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유대교인들이 다시 한 번 바울의 사역과 그가 전하는 복음에 끼어들어 훼손하고, 이방인들이 모세의 율법과는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책에서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가 있는데, 그 중 얼마나 많은 것이 깔끔하고 멋진 패키지에 담겨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욕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약성서의 책을 볼 때 지배적인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 전체를 통합하는 기본 주제가 있나요?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인들에게 여러 번 요청되었습니다. 문제는 빌립보서가 다른 대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책들, 특히 인기 있는 책들 중 기쁨과 관련이 있는 책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와의 관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쁨이 주요 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난이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을 결합하여 기쁨과 고통이 주요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나누거나 참여하는 것이 주요 주제라고 제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특히 편지의 시작과 끝 부분에서 바울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 지배적인 주제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가능한 주제는 올바른 사고일 수 있습니다. 이 제안을 본 적은 없지만 확실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제안입니다. 책 전체를 읽으면서 바울이 독자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생각하라, 같은 것을 생각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지 주목하라.

그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생각하는 단어, 올바르게 생각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는 단어에 대한 참조 수에 기초하여 올바른 생각이 빌립보서의 지배적인 주제 또는 지배적인 주제일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일치하는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라고 일부 사람들이 제안한 또 다른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는 빌립보서 자체가 지배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대답을 제시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바는 빌립보서에는 주요 주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쓰고 있으며 여러 주제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편지를 쓰려고 앉을 때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때로는 직업을 확보하거나 회사에 편지를 쓰는 경우 제품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등 매우 구체적인 목적으로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때에는 단지 장황한 말을 하기 위해 편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정보를 제공하는 편지를 쓰고 있다면 다른 주제로 건너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보를 공개하거나 하나의 포괄적인 통합 주제가 없을 수 있는 여러 주제를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빌립보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화합, 기쁨, 고통 등으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모두 부족하고 그 모든 것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빌립보서에서 합법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에 바울은 단순히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가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싶은 여러 주제와 주제를 다루면서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제가 빌립보서를 좀 빨리 훑어보고 싶다고 말했는데, 속도를 늦추고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빌립보서의 본문이며, 대부분의 관심을 끄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2장 6절에서 시작하여 실제로 5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착취당할 만한 존재로.

그러나 그는 자신을 비우셨고, 내 생각엔 NIV가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셨거나, 자신을 무명으로 만드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발견되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신약에서 기독교 찬송으로 분류되는 부분 중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다루게 될 골로새서에서 발견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를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골로새서에서 우리는 찬송가, 기독교 찬송으로 알려진 또 다른 부분을 발견합니다. 논쟁의 일부는 여러분의 성경이 시적 설정을 하는 성경을 갖고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부분이나 찬송가 부분을 절 형식으로 분리하는 경우, 여러분의 성경은 아마도 빌립보서 2장, 6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분이 찬송가, 또는 적어도 일종의 고귀한 산문이나 시적 유형의 언어로 널리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썼는가, 아니면 독자들이 잘 알고 있는 1세기 찬송가나 시를 단순히 사용하고 인용한 것입니까? 하지만 나는 바울이 이 찬송을 썼는지 아니면 찬송을 빌렸는지 결정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여전히 그 문맥에서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 다루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찬송의 구조를 주목하자면, 이 찬송의 구조는 실제로 U자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기 전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찬송가는 U의 바닥에서 침체를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 더 나아가 죽음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U자 모양의 바닥에 도달했지만 찬송가가 위쪽으로 회전하여 이제 마지막 몇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높은 곳, 하늘 영역에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에 경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소위 그리스도 찬송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으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고, 줄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정확하다면 일종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보다 높아야 합니다. 저는 이 찬송에서 예수님께서 단지 이전과 같은 위치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갖지 못한 것을 얻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그는 낮아지셨으나 이제 높아지셨고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자기를 주라 시인할 이름을 받으시느니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지위를 가져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찬송에 관해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것의 기독론이다.

이 찬송은 소위 매우 높은 기독론을 담고 있는데, 이는 예수의 천상 선재, 곧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이 부분에 있는 흥미로운 구약성서의 인용문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다면 내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구약성서 이사야 45장, 이사야 45장과 23절로 돌아가게 된다면, 제가 원하는 것은 이사야 45장인 것 같습니다. 23절.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내게로 돌이켜 땅 끝까지 구원을 얻으라 나는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흥미 롭군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절대적인 유일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입에서 의로움이 나왔으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말이니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자백하리라. 흥미롭게도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일어날 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의 종류를 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본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흥미로운 점은 이사야 45장에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에 대한 맥락입니다. 그분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본문이 하나님의 절대적 유일성, 곧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입증하는 구약성경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찬송이나 시에는 매우 높은 기독교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결국 그는 높임을 받았고, 다른 모든 신들에 비해 하나님의 유일성을 적용하거나 언급하는 본문은 이제 우주적 예배, 즉 모든 피조물의 보편적 예배를 받으실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됩니다. 자, 이러한 높은 기독교론과 예수의 주권과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의 절대적인 유일성에 대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고 인간의 형상을 취하신 분은 뒤로 물러서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의 본성에 대한 기독교론적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글썄요, 거기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가 그 맥락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6-11절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본문은 2장 1-4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어떤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동정이 있거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품고 뜻을 같이하여 한 뜻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본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기독교론을 담고 있는 이 찬송이나 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2장 1-4절에서 독자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종류의 행동에 대한 모델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 부족하다는 예입니다. 이는 바울이 1-4절에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희생적인 사랑과 타인에 대한 관심의 한 예입니다. 이제 그는 5-11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예를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단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본문은 이 자기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이기심이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모델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2장 1-4절의 독자들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야망.

알겠습니다. 빌립보서에 관해 질문 있으신가요? 내가 말했듯이, 그것이 내가 천천히 보고 싶은 유일한 텍스트입니다. 제가 집중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편지의 전반적인 목적입니다.

바울은 왜 그것을 썼는가? 그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종의 시적이고 찬송가적인 구조가 운율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는 소리로 운율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나

찬양과 합창도 행의 끝 부분에 운율을 맞추고 서로 운율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찬송가나 일종의 고귀한 산문 유형의 글임을 암시하는 다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질문이야. 바라건대, 여러분은 신약성서, 신학에 대한 우리의 이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등에 대한 이해가 매우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생산된 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실제 문제가 있는 실제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그 비결은 매우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에 전달된 편지를 통해 우리가 신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 메일의 또 다른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록된 연대순이 아닌 신약의 정경 순서에 따라 우리가 보고 싶은 다음 책은 골로새 도시에 기록된 책입니다. 골로새인들에게 보낸 편지.

이것은 소아시아 남서부 또는 현대 터키 남서부의 약간 흐릿한 지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조금 이야기한 에베소 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에베소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많은 도시들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가는 길에 골로새의 도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는 사실 다른 두 장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도시의 언덕인 텔입니다. 이것은 고대 도시 골로새가 있었을 고대의 현대적인 그림입니다. 이것은 원형 극장입니다. 골로새 도시에 있는 원형 극장의 남은 부분입니다. 분명히 현대의 골로새 묘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골로새 도시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은 무엇보다도 골로새라는 도시가 바울이 편지를 쓴 가장 작은 도시이자 아마도 가장 덜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에베소나 로마나 고린도와는 달리 골로새는 다소 보잘것없는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이 건물 역시 서기 60년 중반쯤에 지진으로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소 중요하지 않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그 편지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사실은 바울이 그 도시 자체를 방문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 그 일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며, 개인적으로 방문하지도 않았다고 편지를 쓴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전체에는 그러한 인상을 주는 여러 구절이 흩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나와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골로새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는 이들 그룹의 일부로 분류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골로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바울이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에서 매우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골로새서의 다음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어휘와 유사성이 공관 문제에서 발견한 유사성과 같은 종류의 에베소서와 밀접하게 겹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건의 순서와 개념뿐만 아니라 그 표현이 너무 유사해서 마태, 마가, 누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음에 틀림없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출처도 활용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강의 계획서에 나열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사이의 이 구절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종류의 유사성이 분명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읽는 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있다면 영어 번역이라도 비교해 보십시오. 사용된 정확한 단어까지 유사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아마도 가능한 시나리오는 바울이 매우 구체적인 상황이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먼저 골로새서를 썼을 것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폴은 자신이 쓴 글이 훨씬 더 많은 청중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특정 문제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훨씬 더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골로새서의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포함시켰습니다.

아마도 유사점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이 편지들 중 하나를 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아마도 그는 골로새서를 썼을 것이고, 이후의 일부 저자들은 에베소서를 작성하기 위해 골로새서의 일부를 복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Paul이 단순히 동일한 자료를 두 번 사용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한 번은 골로새서의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다루며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다시 한 번 훨씬 더 일반적인 상황과 일반 청중을 다루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바울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달리 표현하면, 바울이 글을 쓰게 된 원인이 된 골로새 성에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커밍아웃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돌아가서 그 책을 읽어보면 바울이 일종의 거짓 가르침이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고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를 읽을 때 그 내용은 그다지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이 어떤 종류의 문제나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서신의 3분의 1 정도인 2장에서 나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 “너희가 복음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골로새서에서는 2장에 들어갈 때까지 책의 3분의 1 정도를 읽을 때까지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힌트를 전혀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썄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처럼

교회에 침투해 있던 어떤 상황이나 특정한 문제, 또는 어떤 종류의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구절 때문에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2장과 4절입니다. 왜 거기에 4절이 두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2장에서 두 번째는 8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2장과 4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바울은 한 장 전체를 끝으로, 그리고 2장 4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말하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몇 구절을 건너뛰면서 그는 말합니다. “누구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전통과 우주의 초등 학문을 좇고 그리스도를 좇지 아니함을 좇음이라” .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2장 16절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먹고 마시는 문제와 절기들과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누구든지 여러분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고 환상을 생각하며 사람의 생각을 따라 까닭 없이 자만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는 너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 그런 다음 2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의 초등 학문에 대하여 죽었으면 어찌하여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삽니까? 왜 규정에 복종하는가? 취급하지 말고, 맛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구절들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일종의 일탈적인 가르침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관심을 갖고 있던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거나 침투하기 시작한 어떤 종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서 이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막거나 그가 두려워하는 이 가르침에 맞서기 위해 노력합니다. 골로새서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데 속았을 수도 있고,

일부가 되거나 추종자가 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중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종의 거짓 가르침을 다루고 있지만 상황은 갈라디아서만큼 심각하거나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가서 첫 구절에서 그는 감사를 건너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복음에서 이렇게 속히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지만 이제 그는 2장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예, 거짓 가르침이 있지만 아마도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아직 교회에 침투하여 실제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추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했듯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유대교인들, 즉 이방인들을 모세의 율법에 복종시키도록 강요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모세의 율법에 복종하고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골로새서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많은 제안과 설명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미혹되거나 미혹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듯한 이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제는 증거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장 8절을 읽어 보면, 누구든지 철학과 사람의 전통에 따른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그것을 철학이라고 불렀고, 또한 그는 그것이 단지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것이며 기만적으로 골로새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설명이나 인간의 전통에 기초한 철학에 대한 설명에는 무엇이 포함될 수 있습니까? 자, 다음 부분에서 16절부터 조금 더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이 가르침의 성격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는가? 누가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을 지킬 것인가? 유대인. 사실, 초승달, 절기, 안식일이라는 세 가지 문구가 구약성서에 나옵니다. 흥미롭게도 이 내용은 쿰란 문헌인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거짓 가르침이 무엇이든간에 바울이 다시금 유대교인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일종의 유대교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지금 독자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위험에 처해 있는 유대교도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이건 어때요? 누구든지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며 사람의 생각을 따라 까닭 없이 과장한 환상을 생각하여 너희를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

자, 그것이 무엇이든, 천사를 숭배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와 함께 숭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그 규정에 복종하고, 만지지도 말고, 맛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육체적인 쾌락을 피하거나 특정 사물과의 신체적 접촉을 피하는 일종의 극단적인 금욕적 수행처럼 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여러 종교 철학과 신념의 융합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약간의 유대교와 약간의 영지주의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다른 이교도 종교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학기 초에 이야기했던 것 중 일부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유대교 신앙과 다른 이교 신앙의 일종의 혼합주의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이라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골로새서 뒤에 있는 거짓 가르침과 일부가 주장하는 정도까지 혼합되었을 것이라는 증거가 실제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교는 비록 헬레니즘과 그리스적 사고 방식의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결을 유지하는 데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골로새서 뒤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찾기 위해 유대교 외부에서 눈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실제로 종말론이라고 부르는 텍스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닮은 본문이다. 그것은 누군가가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사 존재를 포함하는 천국을 보는 환상적 경험에 대한 설명이며, 일부 묵시록에서는 천사가 예배하는 환상, 심지어 예배에 천사와 합류하는 환상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들이 예배를 드려야 할 장소를 제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비롭고 환상적인 유형의 경험은 유대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모든 종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 또 다른 가능성은 음식과 음료에 대한 언급이라고 확신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로 누구든지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초승달과 절기, 안식일, 천사 숭배와 이상에 대한 숭배, 몸을 학대하는 것, 겸손, 심지어 자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과 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모든 요소는 에세네파나 쿨란 공동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사해 두루마리에서 증언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싸우고 있는 유대교는 신비로운 환상과 환상적 경험을 강조하는 묵시적인 유형의 유대교가 아닌지, 아니면 에세네파나 사해 공동체처럼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유대교였을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사물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의식적인 순결을 지켰습니다. 실제로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늘 영역에서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증언하는 쿨란 공동체의 문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바울이 혼합주의나 유대교와 이교 신앙이 하나로 뒤섞인 혼합주의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당시의 유대교를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유형이거나 에세네파입니다. 또는 유대교의 쿰란 유형. 문제는 이 유대교가 이제 그의 일부 독자들에게 매력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가르침에 굴복하거나 이 신비한 유형의 유대교, 묵시적인 유형, 에세네 또는 쿰란을 따르는 위험에 대해 그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유대교의 일종. 요약하면, 골로새서의 목적은 바울이 골로새서를 써서 독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 거짓 가르침, 유대교에 의해 미혹되지 않도록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의 대안으로 유대화하는 가르침에 굴복하지 말라고 경고하기 위해 편지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신비주의나 쿰란 유형의 유대교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천사 숭배, 환상적 체험 등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 대신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책의 배경이나 Paul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글을 쓰는지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좋은. 그리고 실제로 제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서면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골로새서를 읽을 때 유대교와 영지주의와 같은 다른 이교 사상과 다른 이교 신앙이 하나로 뭉쳐진 혼합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지 않으며,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언급하는 가르침의 모든 요소를 찾기 위해 유대교 너머를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사과하겠지만, 아닌 것 같아요. 좋습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요 주제를 제공한다면,

아마도 주요 주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주요 주제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일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그의 서신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절대적인 충족하심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신비로운 유형의 유대교와 그 경험이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 가르침, 즉 유대교에 대한 바울의 주된 문제는 단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의 문제는 이 유대교와 그 모든 금욕적 관습과 신비로운 경험이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죄와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죄의 권세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욕주의와 신비로운 경험이 죄를 극복하고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유대교를 그들이 왜 믿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나 우월성은 바울의 주된 주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편지의 아주 초반부, 즉 1장에서 그 주제를 전개합니다. 여기에 소위 그리스도 찬송가 중 두 번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빌립보서 2장과 6절부터 1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부분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음, 바울이 이것을 썼나요? 아니면 기존의 찬송을 빌리고 있는 걸까요? 초대교회가 알고 사용했던 찬송가나 시를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이것을 썼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질문을 해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찬송가는 어떻게 기능합니까?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좌나 주권이나 통치자나 권세나,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시니 이는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제가 이 찬송을 편지의 앞부분에 넣은 이유 중 하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찬송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기독교 찬송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고귀한 묘사를 본 후에 그들이 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짓 가르침을 피하기 위해 그분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그들은 이 거짓 가르침, 신비로운 유대교가 실제로 그들에게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는 그분의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 찬송과 시를 듣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신비한 유대교가 제공하는 금욕주의와 환상적이고 신비로운 유형의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찬송에 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송가가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우선,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첫 창조의 주님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언급하면서 이제 예수는 우주 창조의 주요 주체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첫 창조와 온 우주의 주로 묘사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예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이 그분이 피조물을 참된 목적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에베소서 1:10의 가정과 같습니다. 가정은 죄가 혼란을 일으켰고 죄가 첫 창조를 어떤 의미에서 파멸시켰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창조를 새로운 창조라는 목표에 도달시키기 위해 새로운 창조 행위를 제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첫 창조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새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 행위 라는 의도된 목표에 창조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그가 에베소서인 에베소서와 공유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과 화해시키기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 그러나 화해된 인류로서의 교회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시작하신 이 새로운 창조적 행위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용어는 구약성서와 유대 문헌에서 지혜에 적용되는 용어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지혜는 창조의 주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1세기와 그 전후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혜를 율법인 토라와 동일시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의 참된 구체화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 하나님의 형상, 창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는 범주를 사용합니다. 그 언어의 대부분은 구약성서와 다른 유대 문헌이 지혜를 어떻게 묘사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참된 계시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 문구도 흥미롭습니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구는 실제로 다윗의 왕 메시아에 관한 시편인 시편 89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자는 분명히 피조물에 대한 주권과 권세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창조물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나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가 지금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맏아들은 실제 출생이나 생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위나 주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89편에서 왕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장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창조의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편 89편의 성취인 다윗 왕으로서의 왕으로서 모든 창조물에 대한 그분의 권위와 주권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자는 지혜문학과 구약성경에서 이 모든 문구들을 모아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 즉 첫 번째 창조와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의 주권자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결론은, 독자들이 필요로 하는가? 그들은 이 신비로운 유형의 유대교, 쿰란이나 에세네 유형, 묵시적인 유형의 유대교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이나 보충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찬송을 찬미한 후에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바울은 그것에 기초하여 더 자세하게 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 독자들이 그것을 알고 이 유대교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까? 이 거짓 가르침.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단순히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편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논의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역사와 문학,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강의 22강의 Dave Mathewson 박사였습니다.